



##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9장

1.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2.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네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3.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네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네 마른 목 축이어라
4.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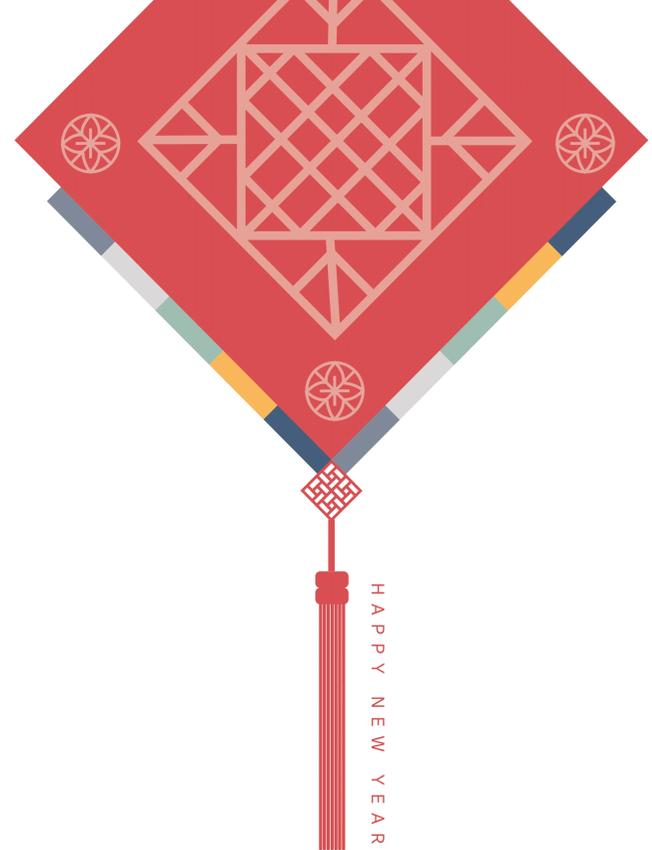
(후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 내 주여 뜻대로

찬송가 549장

1.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 2026 설 가정예배 순서지

| 행복하고 복된 설날 되세요 |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사랑교회**





## 예 배 순 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신앙고백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찬송가 539장 ..... 다같이

기 도 ..... 말은이

사랑의 하나님,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모든 상황 앞에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2026년 한 해도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과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과 늘 함께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시편 23:1~3 ..... 다같이

말 씬 .....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 말은이

찬 송 ..... 찬송가 549장 .....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시 23:1-3] 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데도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새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목자되신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라고 고백합니다. 목자의 손길은 언제나 양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새해에도 상황과 형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신뢰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둘째, 두려움 속에도 담대해야 합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에는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새해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어 살아갑시다.

#### 셋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선한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는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올해도 우리를 돌보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실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목자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속에서도 담대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 이 설교는 더사랑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더사랑교회[대구]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